2

선행은총

먼저였던 것은 언제나 은혜였다

속회연구원

존 웨슬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어떠한 요청이나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먼저 거저 주시는 은혜를 '선행은총'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믿음이 없다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하고 묻는다. 특별한 계기도 없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마음의 가책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오랜 시간 교회와 멀어져 있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고, 어떤 이는 한 번도 신앙을 가져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가가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말을 건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성경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요 6:44)"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이 하나님께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향해 움직이신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먼저 오심에서 시작된다.

웨슬리는 이 시작을 은혜에서 찾았다. 내 안에 본래 선한 것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성경적 구원의 길」(표준설교 43)에서 흔히 '자연적 양심'이라 부르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떼어 놓지 않는다. 율법이 없는 사람도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를 살핀다(롬 2:14~15). 선을 향한 갈망, 잘못에 대한 죄책, 하나님을 향한 희미한 소원까지도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은 '영적인 백지'가 아니다. 우리가 그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실 수 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을 향한 작은 질문과 갈망이 이미 그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 선행은총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시작을 바라보게 한다.

은혜는 먼저 오고, 응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선행은총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로만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다. 은혜는 먼저 주어지지만, 인간의 응답

을 없애지 않는다. 선행은총은 인간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높이는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은혜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교리다. 웨슬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설교 85)에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빌 2:12~13)."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은혜에서 시작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지만, 그 응답을 강제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자신에게 비추어진 빛을 따라 갈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은혜와 응답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은혜가 먼저이지만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고, 그 응답의 가능성조차 은혜로부터 온다. 이것이 웨슬리의 선행은총이 보여 주는 중요한 균형이다.

목회 현장에서도 이 균형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변화가 더디다고 해서 조급하게 몰아붙일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손을 놓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고, 동시에 그 은혜에 응답하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곁을 지킬 수 있다. 선행은총을 믿는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겸손히 참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교회

선행은총을 믿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변화가 더딘 사람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저 사람은 어렵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까지 판단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선행은총을 믿는다면 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규정하기 어려워진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을 생각해 본다. 그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기까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누군가의 권유 한 마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수도 있

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처음 나온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을지 모른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말솜씨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분명하게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을 현재 모습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반응이 더디다고 단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 먼저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선행은총을 믿는 교회는 한 영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실 수 있고, 우리가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이다.

속회, 먼저 일하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

이 지점에서 웨슬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속회'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 사람의 삶을 살피고,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도록 곁에서 돕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속회는 선행은총의 목회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자리다.

교회가 커질수록 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주일예배에 참석했다가 이름 없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의 고민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지내는 사람도 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속회는 한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자리여야 한다.

"이번 주에는 왜 안 나오셨을까요?"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묻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보다 먼저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 번의 안부가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는 일이 그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드리는 기도가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속회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서로의 삶에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

하는 자리다.

그러므로 속회는 교인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한 영혼 가운데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서두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선행은총은 속회를 '관리의 자리'가 아니라 '발견의 자리'로 바라보게 한다.

먼저였던 것은 언제나 은혜였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틀린 고백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고백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으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가 먼저 있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수많은 '먼저'가 있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고, 내가 교회 문을 열기 전에 나를 기다려 준 사람이 있었으며,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찾고 계셨다. 결국 신앙의 첫 장면에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므로 구원의 첫 문장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목회와 교회의 태도까지 바꾸어 놓는다.

한 영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교회, 사람의 현재 모습만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는 교회, 아직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라면 사람을 재촉하기보다 기다릴 줄 알고, 판단하기보다 살필 줄 알며,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먼저였던 것은 언제나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고, 교회가 한 영혼에게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삶을 두드리고 계셨다. 선행은총은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바로 그 시선을 가르쳐 준다.

"God worketh in you; therefore you can work."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므로, 여러분도 행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설교 85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 III.3)